



輸入開放에 對應한 畜産政策方向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신구범

1. 머리말

우리나라 축산업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축산물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국민총생산액 중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농업조수입 중 축산수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농가의 주요소득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축산업은 사육기반의 취약성과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주기적인 생산의 과잉 및 부족현상과 수급 및 가격불안정 현상을 되풀이하는 구조적 취약성과 함께 유통구조면에 있어서도 제반 유통시설의 낙후성과 제도적인 미비점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80년대에 들어 고도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개선 등을 동시에 이룩하면서 '89년 기준 국민총생산은 2,101억불로 세계 13위, 무역규모는 1,239억불로 세계 11위를 차지하는 한편 국민1인당 GNP도 4,968불에 이르는 등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적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들로부터 우리 농산물시장에 대한 강력한 수입개방압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88년 IMF 8조국(외환 자유화시행국) 가입에 이어 '89년도에는 GATT/BOP 조항 원용대상국에서 졸업하게 됨에 따라 다른 농산물과 함께 축산물도 시장개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국제경쟁력의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축산업을 우리나라 농업의 주요소득원으로 육성발전시킴과

아울러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축산업의 구조 및 제도의 과감한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및 자금지원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장기발전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형태면에 있어서는 전업경영의 확대, 수급면에서는 전품목 자급에서 제한적인 수입개방과 수출촉진으로, 가격정책은 연동제에서 자율가격제도로, 유통형태는 생육중심의 유통에서 지육·부분육 유통으로 개선·전환한다는 전략아래 총 2조 234억원을 투입하여 축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축산정책의 방향

가.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정착

먼저 양축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축산물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제도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금년중에 안정기준 가격제도를 신설, 소 등 축산물 중 생산 및 수급구조가 취약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축산물가격이 안정되도록 추진하고 생산단체 등 유관기관 중심의 「축산물 수급예측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5년 단위로 축산물의 중·장기 수급을 전망·예측함으로써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양축농가 스스로 소비확대와 수급조절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낙농부문에 있어서도 '85년이래 계속되는 우유생산 과잉과 앞으로의 유제품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축협을 중심으로 한 집유일원화, 원유검사의 공영화, 그리고 자율적인 원유가격결정 및 우유소비확대와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낙농진흥사업회」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

축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우는 수급 및 대외여건을 고려하여 사육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부업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위주로 구조를 전환해 나가고 젖소 및 돼지는 가족단위의 전업규모로, 닭은 전기업규모로 육성하고, 계열화사업의 추진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사육시설자동화 등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비부담의 경감을 위한 양축자금지원규모를 축산경영비의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등 축산관세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돼지는 사육규모간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대규모 양돈업체에 대하여는 수출에 주력토록 함으로써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부·전업규모는 국내공급을 위주로 하여 규모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다원화 되어 있는 가축개량체계를 국립종축원으로 일원화하여 한우고기의 육질고급화를 추진하여 수입쇠고기와의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본격적인 가축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 축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

축산물 유통구조를 생축중심 유통에서 지육·부분육 중심으로 개선, 전환하는 등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산지 가축시장을 현재의 311개소에서 150개소를 재정비하여 현대적 시설을 갖춘 생축유통의 거점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도축장을 육류의 유통권역에 따라 통·폐합하여 시설을 규모화하고, 권역별로 대형

식육유통센터 설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축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을 현재 9개소에서 2001년까지 인구 1백만 이상의 도시권역에 연차별로 8개소를 증설하고, 육류등급제를 시행하여 육질에 따른 육류의 유통, 판매 및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축산물의 수급안정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있는 식품 소비 변화에 맞추어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축산물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다. 배합사료의 허가제 폐지,

자가배합사료 체제 전환

축산물의 생산안정에 기본이 되는 사료수급안정과 조사료 자원의 적극 개발을 위한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중에 사료관리법을 개정하여 '91년부터는 배합사료공장 허가제도를 전면 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가배합사료 이용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으며, 초지법도 개정하여 초지의 조성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개선하여 기존의 민간위주의 소규모 초지개발방식과 병행하여 도시근교 등 부적지의 낙농가를 이주시키도록 하는 초지의 공영개발을 적극 추진하되 우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개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으며 부실농지의 사료포전환 등 조사료 증산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라. 축산물 수출유망 품목 지원 및 검역기능 강화.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출유망 품목을 적극 개발하고 수출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축산물 검역제도 및 검역기능을 강화, 악성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축산농가 보호 및 위생상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수출유망품목으로 돼지고기 등 닭고기를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수출육가공장 건설에 따른 시설자금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검역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현지 입회검사 등 수입위생조건 강화, 수입검역시 정밀검사 실시확대 등 검역기능 및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 축산폐수처리 지원강화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축산폐수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축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축산물 분뇨처리 대행회사 설립과 시설지원 등축산공해 방지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축분뇨가 축산농가의 소득원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비료의 원료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사료화하는 문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영세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지역축협에 분뇨처리장비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분뇨수집탱크를 설치한후 축협에서 분뇨를 수거, 초지나 농경지등에 살포할수 있는 제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인 가축분뇨 처리대행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를 지정하여 분뇨를 수거·살포하는 체제를 구축토록하여 축산폐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할 계획이다.

3. 맺는말

이와 같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을때 2000년대초의 우리나라 축산업은

○ 가축사육규모면에서는 소가 2,946천두(한우 2,308, 젃소 638), 돼지 9,014천두, 닭 99,127천수(산란계 67,010, 육계 32,117)가 될 것이고,

○ 축산물의 소비수준면에서는 국민일인당 연간소비량으로 육류가 현재 18kg(쇠고기 3.4kg)에서 1.8배가 늘어난 32kg(쇠고기 5.7kg)으로, 우유가 39kg에서 1.6배가 늘어난 63kg이 될 것이며,

○ 농가경제면에서는 농업소득 중 축산업의 비중이 '88년의 10.4%에서 24.3%로 높아져 농업소득의 주요한 산업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정부는 금번 축산장기발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민들이 우리나라 축산의 밝은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축산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